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제3주 -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 91:1-7 다함께
- 찬 송(Opening Hymn) 55장(새 15장) 다함께
- 교독문(Responsive Reading) 새 25번(스크린참조) 다함께
-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가 가정을 믿음과 사랑 위에 세워가는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존경받는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위치를 잘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들과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분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인생의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잠시도 잊지 않게 하셔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으로 강력하게 증거하는 증인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 성경봉독(Scripture) 로마서 15:1-7 인도자
-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

- 봉 헌(offering) 71장(새 50장) 다함께
-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 찬 송(Hymn) 278장(새 220장)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사랑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2.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가정을 위해 사랑과 책임감으로 헌신하신 모든 아버지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3. 오늘 친교시간 후에 믿음속 모임이, 다음 주일(25일)에는 소망속 모임이 있습니다.
 - 믿음속(속장 : 송현진)
김연진, 김영희, 김희상, 석명선, 신성화/박인숙, 송금자, 유동진/이진옥, 이경자, 이진국/김성애, 정태욱, 허춘희
4. 수정된 교인 주소록과 말씀 묵상집 7월호가 나왔습니다. 한 부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5. 교우동정
 - 한국방문 : 이진국권사님·김성애성도님

(기도제목)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미 연합감리교회(UMC)가 회개와 순종을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며,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영어권 사역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박현숙성도님,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캄보디아 조동천선교사님 위암수술과 회복을 위해)

(말씀묵상) 로마서 15:1-7

1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3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4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5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6 한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7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1.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1-3절)
2.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까?(4-6절)

❖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고,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받음으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고, 자신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남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고 상처와 아픔을 안겨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치열한 전쟁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희생하면서 타인의 유익과 기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시선으로 남을 보고, 속이고 빼앗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면서 양심의 가책조차 못 느끼는 강박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바로 이기심을 채우려는 죄인들의 탐심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린 슬픔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을 위해 사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이기심이요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인생은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상대방이 사랑의 대상이 아닌 이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매몰차게 버립니다. 이런 세상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생명수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타인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타적인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해관계에 얽혀 끼리끼리 모여 자신들과 마음이 맞지 않으면 소외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이며, 나는 어떤 성도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받아 줌으로 한뜻과 한마음이 되어 서로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